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미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10.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²⁾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목 차 〉

□ 〈기획- GLN 물류기업〉 에코비스 로지스틱스	2
□ DP World, 스페인 타라고나 항만 시설확장 개장	4
□ BRZ Investment Group, 브라질 TESC 터미널 지분 매입	5
□ [결과 보고] 국내물류기업 자원연계 해외진출 방안 세미나 결과	6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이진주 연구원(02-2105-2982, jinjoo@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획- GLN 물류기업> 에코비스 로지스틱스

▶ 회사소개

- 1993년 설립되어 러시아 지역과 CIS 지역의 무역대행, 운송, 현지통관, 물류창고, 유통사업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회사
- 국내 본사를 비롯 러시아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키예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제르바이잔 바쿠, 중국 상하이 등 해외 4개의 현지법인과 2개의 지사를 운영

▶ 사업 분야

- 물류부문 일괄서비스 제공
 - 운송부문은 항공, 해상, 철도를 아우르는 국제운송과 보세, 내륙운송, 보관, 통관에 이르는 서비스 및 전세기 운항서비스도 제공
 - 특히, 이 지역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으로 통관대행업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화주로부터 신뢰가 높음
- 거래처 비율은 전자,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국업체 50%, 현지업체 30%, 외국계 20%
 - 기업으로는 소니, 월풀, MTC, INDESIT, 삼성, LG, 롯데, 대우, CJ, LS, STX, GS, 유니온스틸, 헨켈, CAS 등

▶ 회사 성장과정

도입기 (1993년~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본사 설립과 함께 모스크바 현지법인의 설립 - 1995년 대한항공 러시아 화물대리점을 취득 - 1997년 대한항공 국제항공 화물 대리점 계약 체결
성장기 (1998년~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타슈켄트, 2000년 키예프, 2003년에는 알마티 법인을 설립 - 아틀란트 소유즈항공 한국 GSA 취득, 아시아나 항공 국제항공 화물 대리점 계약 체결
도약기 (2006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알마티 물류센터 건립, 2009년 모스크바 물류센터 오픈 - 2007년과 2008년에는 바쿠와 상하이 지사를 추가로 설립 - ISO9001 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국토해양부) 취득 -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 모스크바 물류지원센터 운영자 선정

▶ 향후 계획

-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강화, 2010년 전 세계를 무대로 매출 500억 원 달성을 목표
 - 러시아 및 CIS에서의 전문성을 활용,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고 서유럽과 연계한 유라시아 통합 물류 서비스를 새로 시작할 계획
- 중국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거점 확보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내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
- 현재 알마티와 모스크바 물류센터 운영을 필두로 CIS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러시아 및 CIS 지역 특화 이유

-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물류수요를 가졌다고 판단
 - 특히, 이 지역은 구매력이 높은 반면, 가전제품 및 소비재 등의 생산 부족으로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물류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
 - 전통적으로 국제교류의 낙후지역으로 시장선점을 통한 양질의 물류 서비스 제공

▶ 러시아 및 CIS 지역 진출시 유의사항

- 통관 : CIS 국가들의 WTO 가입 및 투명화 시기
- 무역조건 : FOB 조건에서 DDP 조건으로 변화¹⁾
- 현지법인 : 법인 설립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
- 지역전문가 : 현지화 및 전문화된 인력 부족으로 영업의 한계성
- 법인운영비 : 물가 인상에 따른 현지법인 운영비 증가
 - CIS 국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는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임
 - 초기 진출시 전문기업의 컨설팅 및 법인대행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지화를 이뤄야 할 것임

자료 : 에코비스 로지스틱스 홈페이지(www.ecovoice.com), 에코비스 로지스틱스 인터뷰 내용정리

이진주 연구원 ☎ 02-2105-2982, jinjoo@kmi.re.kr

1) * FOB(Free on Board) 조건 : 본선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제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이후 일체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 부담

*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 : 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입국 내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임

□ DP World, 스페인 타라고나 항만 시설확장 개장

- 2008년부터 스페인 타라고나항을 운영 중인 DP World가 2년에 걸친 동 항만의 1단계 확장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27일에 개장하였음
 - 이날 개장식에는 Jose Balco 스페인 개발부 장관, José Montilla 카탈로니아 주정부 지사, Josep Anton Burgase Rabinad 타라고나 항만청장 등 주요인사 약 350명이 참석하였음
- 1단계 확장은 선석길이 800m, 전면 수심 15.5m 규모임
 - 철도가 항만 내로 인입되어 있으며, 기존의 파나막스 크레인 5기에 수퍼 포스트 파나막스 크레인 3기가 추가되고, 야드 크레인 추가 등으로 생산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 이로서 타라고나항의 연간 처리능력은 110~130만 TEU 수준에 달하게 되었음
 - 타라고나항의 2009년 처리 물동량은 약 20만 TEU이었고, 현재 이스라엘 Zim 라인이 타라고나항을 스페인의 관문 및 지역 허브로 활용하고 있음

<스페인 타라고나항 위치>



<타라고나항 DP World 터미널>



자료 : CI-Online, 2010.11.1., dpworld tarragona news release 2010.10.27

송주미 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 BRZ Investment Group, 브라질 TESC 터미널 지분 매입

- 2010년 초 스페인 ACS그룹의 항만물류 부문 자회사인 Dragados사를 매입한 미국 JP Morgan사는 Dragados사가 소유하던 TESC(Terminal Santa Catarina)의 지분을 BRZ Investment Group에 매각
 - 이번 매입을 통해 BRZ Investment Group은 TESC 지분의 62.5%를 소유

※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45호 참조

- BRZ Investment Group은 브라질 Itapoa Container 프로젝트에 20%의 지분을 소유한 것을 포함하여 브라질의 여러 항만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56호 참조

- 이번 매입을 통해 Saco Francisco do Sul 만을 사이에 두고 경쟁관계에 놓여있었던 TESC 터미널과 Itapoa 컨테이너 터미널간에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평가됨

<TESC 및 Itapoa 터미널 위치>



자료 : CI-Online, TESC under new owner news release 2010.10.26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결과 보고] 국내 물류기업 자원연계 해외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 지난 28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내 물류기업 자원연계 해외진출 방안 세미나'가 회원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 세미나는 KMI 김학소 원장의 개회사, 국토해양부 박인섭 물류항만실장의 환영사에 이어 몽골 도로교통부 푸레브도르즈 차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어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의 김태경 사무관이 '자원운송 연계 해외진출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KMI 이성우 국제물류연구실장의 '페루 마르코나항 사업 현황 및 전망', 태웅로지스틱스 조일장 이사의 '중남미 시장 진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 이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졌으며, 더커자산운용 김태은 이사의 '몽골 진출사업 소개 및 향후 전망', 청조해운항공 강현호 사장의 '몽골 시장 진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 잠시 동안의 커피 브레이크 시간 이후 고려대 이진상 교수의 사회를 통해 국토해양부 김내형 팀장,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팀장, 한진해운 김항 상무, 한국광물자원공사 류민걸 팀장, 영진 GLS 송인석 사장, 해외건설협회 신삼섭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임재국 팀장, 한아엔지니어링 정공일 사장의 토론시간을 가진 후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세미나 진행 도중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습시다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미숙한 점들을 잘 보완하여 다음에는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해외물류 투자사업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본 세미나 발표자료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mi.re.kr)의 알림광장>세미나중계실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